

세계사에서의 무기발달과 전술 전략의 변화 VI

- 로마의 쇠퇴와 기마부대의 부상 200~400년 -



許重權

육군 제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육군 중령, 역사학 박사

인도 지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기마부대는 오랫동안 戰場을 지배하여 왔으나, 아시아의 騎馬部隊가 그리스, 마케도니아 및 로마의 훈련된 步兵部隊를 언제나 격파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기마부대가 유럽에서 점차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하여 가게 하였고, 아시아에서처럼 유럽에서도 기마병이 최고라는 사실이 378년의 Adrianople 전투에서 분명히 밝혀졌다.

군사적 추세

378년의 Adrianople 전투에서 우리는 이 시기의 2가지 중요한 군사적 추세를 알 수 있다. 첫째, 게르만족에 의하여 가장 큰 제국이었던 로마가 몰락할 것 같은 현상과, 둘째, 군사사에 있어서 기념할만한 전술적인 혁명인 騎馬部隊에 의한 步兵의 몰락 현상이 그것이다.

로마의 지도자들 중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첫번째 서열에 위치시킬만한 위대한 군사적 영웅들은 이 기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Claudius II, Aurelian Probus, Julian 등 로마의 황제들은 군사적으로 유능한 자들이었으나 위대한 영웅으로 그들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특출한 능력을 보유했던 장군들은 로마의 Carus, Constantine 그리고 Theodosius를 들 수 있고 로마화된 야만인 출신의 Stilicho, 아랍의 Odenathus, 중국의 司馬炎, 페르시아의 Ardashir와 Shapur I, 그

리고 인도의 Samudragupta 등을 들 수 있다.

■ 튜톤 야만인

이 시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로마에 대한 게르만족의 분노와 용맹성은 로마군의 기술과 훈련 및 조직 등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3세기 중반이 못되는 시기부터 게르만족은 위협이 되기 시작하여, 로마의 내부적 무질서 상태를 틈 타 공백이 발생한 자리를 메우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야만인들은 로마화하기 시작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로마군과 경쟁하게 되었고 또 몇몇의 경우에는 승리하였다. 378년의 Adrianople 전투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튜톤인들은 로마의 지배 영역을 차지하지는 못했고 Dacia와 후에 영국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국의 영토로부터 로마군을 몰려나게 할 수도 없었다.

그러한 지역에서 로마가 안고 있던 문제는 군사적인 것보다는 행정적인 것이었다. 게르만족은 로마의 美德이 마침내 사라지고 있을 무렵 로마 제국을 타도하지는 못했고 단지 로마제국이 차지한 영토를 물려받거나 제국의 서부 지역만을 물려받았을 뿐이었다.

야만인들의 전투 技法이나 戰術은 定型의이지는 않았다. 북서 독일의 Franks인은 騎馬部隊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으나 그들의 주요 兵種은 본질적으로 步兵이었다. 남부 독일의 Alemanni인은 동쪽에 거주한 Quadi인 처럼 기본적으로는 騎馬部隊였으나, 기마부대 隊形에 輕步兵을 혼합하고 있었다.

Sarmatia인도 역시 騎馬兵이었는데, 그들은 다른 부족에 비하여 보다 아시아적 모델을 채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훨씬 동부의 Turk적인 Allan족과 밀접히 연결되는 스키타이-게르만인의 혼혈이었음이 분명하다.

Goth족도 역시 사르마티아인보다는 덜 아시아

계통이지만, 스키타이인과 게르만인의 혼혈로 여겨져 오고 있다. 고트족은 2개의 큰 집단으로 나뉘는데, 동고트족이라 불린 Dnieper - Don 草原地帶에 거주한 Ostrogoth족은 기본적으로 騎馬人이었다.

서고트족이라 불린 Carpathia - Transylvania 지역에 거주한 Visigoth족의 군사 대형은 기본적으로 步兵부대에 기초한 步騎 혼합의 형태를 취하였다. 그들과 혈통으로 연결되는 Heruli족처럼 고트족은 海洋人으로 변하여 로마제국에 대하여 흑해와 에게해를 건너 바다쪽으로 파괴적인 침략을 집중하였다.

북부 게르만의 Saxon족도 해양인이었는데, 그들은 영국과 Gaul의 해안지방을 자주 공격하였다. 게르만족의 군사적인 혁신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아마도 고트식의 馬車 要塞였다고 여겨진다.

이동하거나 전투를 수행할 때 그들은 대규모의 마차 행렬을 이루어 실시하였다. 밤에는 馬車로 둥글게 圓을 형성하여 조잡하지만 효과적인 要塞를 만들어서 그 내부에 모였다. 전투 지역에서 방어 용도로 사용한 것 외에, 그들은 말 식량으로 사용하는 乾草를 제공하는 보급소 및 약탈품을 보관하는 장소로도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게르만족은 마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것을 행군시 이동 요새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마차 운용의 개념이 게르만족 고유의 것이었는지, 아니면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유래된 것인지, 아니면 로마군의 城壁 축조 체계의 변형으로써 채용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야만인들은 로마군에서 그 역할을 점점 증대시켰다. Constantine 황제는 이전의 황제들보다 야만인의 地位나 權限을 더 많이 확대시켰다. 이와 같은 추세는 Julian 황제 통치시기도 계속되었고 Theodosius 황제 통치시기도 제국의 전체가 관련된 정도로 절정에 이르러, 야만인들이 군대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제국의 군 指揮官들 대부분이 야만인 출신으로 채워졌다.

기 획 연 재

■ 騎馬部隊의 浮上

인도 지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기마부대는 오랫동안 戰場을 지배하여 왔으나, 아시아의 騎馬部隊가 그리스, 마케도니아 및 로마의 훈련된 步兵部隊를 언제나 격파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기마부대가 유럽에서 점차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하여 가게 하였고, 아시아에서처럼 유럽에서도 기마병이 최고라는 사실이 378년의 Adrianople 전투에서 분명히 밝혀졌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보병과 기병 혼합이라고 하는 武器體系의 均衡 개념을 한번도 갖지 못한 로마인은 동부의 沙漠지대 및 동부 유럽의 草原지대까지의 遠距離 작전과 平原에서의 작전을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移動性, 速度 및 機動力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로마인은 파르티아인, 페르시아인 및 튜튼인이 구사한 기병부대 운용 원칙과 효과적인 수단들에 맞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彈道武器의 사용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병의 戰鬥隊形을 약화시켰고, 보병부대가 白兵戰을 수행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을 감소시키게 하였다.

그리고 전투원들은 가능한 한 對戰의 손실과 위험을 피하면서, 移動과 機動에 의하여 戰爭이나 戰域을 승리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다. 파르티아인들이 카레 전투에서 구사한 전술을 통하여 로마인에게 이와 같은 종류의 전쟁 양상에 대한 교훈을 주었다.

마침내 서서히 진행된 그러나 지각되고 있었던 로마군의 訓練 弱化 경향은 레지온 병사들에게 기병 부대의 충격이 주는 공포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378년에 발생한 아드리아노플 전투는 기원전 54~53년의 카레 전투에서부터

시작된 보병에 대한 기병의 우위라고 하는 길고 점차적인 전개과정의 絶頂을 이루었다.

특별히 衝擊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기마부대의 채용에 대한 큰 충동은 아시아인이 이 분야에서 발전시킨 기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첫째로子を 포함한 말안장의 혁신은, 기마병과 말의 무게에 의하여 乘數 효과를 얻은 말의 速度에서 비롯되는 힘으로 기마병에게 말등 위에서 投槍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페르시아와 중앙 아시아 초원 지대에서 덩치가 큰 새로운 말 種族이 출현하여 특별히 충격 행동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점들은 곧 로마군에 채용되어, 로마군도 페르시아인처럼 기마병과 말에 쇠사슬 갑옷을 입혀 소규모 彈道武器와 경량의 徒手 무기들의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게 하였다.

로마군은 그들의 騎馬重槍手가 파르티아인, 중국인 및 중앙 아시아인들이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온 騎馬輕弓手 및 騎馬重弓手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2종류의 기마병은 상호 보완적이었다. 기마 궁수는 적을 창에 충격에 놓이도록 준비하고 기마 창수들이 가한 위협은 적으로 하여금 밀집 대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기마 궁수들로부터 가장 취약하게 만들었다.

흥미롭게도 아라비아와 누비안 사막 지대에서 로마군은 경기병을 운용하여 낙타 부대처럼 아라비아식의 모델에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로마군에 관한 한 옳던지 아니면 그르던지, 378년의 아드리아노플 전투의 교훈은 레지온이 공격 부대로써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레지온은 기마 궁수병과 기마 창수병으로 구성된 중기병으로 대체되었고, 騎兵이 군의 주요 부대가 되었다.

중보병 부대는 기마부대와 경보병부대가 기동할

수 있도록 基地를 제공하는 단순한 2류의 부대, 즉,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임무 및 지위가 격하되었다. 그리하여 팔랑스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취약점을 그대로 지닌 채, 로마군에 팔랑스가 다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팔랑스의 취약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로마군은 새로운 팔랑스 레지온 부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 軍事 理論

이 시대의 후반부에 귀족 Flavius Vegetius Renuatus가 『De Re Militari』(『군사 문제』, 보통 『로마의 군사 교범』으로 알려짐)의 저술을 준비하였다. 베게티우스는 이 작업을 아드리아노플 전투 후 383~392년, Valentinian II 황제의 통치기에 저술하였다.

베게티우스는 유명한 장군은 아니었다. 그의 저술에 의하면 그는 거의 군사적 경험이 없는 자였다. 그러나 그는 軍事史를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초기 로마의 戰術과 作戰 原則들을 재생함으로써 로마의 위대함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초기 레지온의 組織과 作戰準則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의 주장들은 4세기 후반 로마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서 실제적이지 못했고 그러한 그의 주장들은 彈道武器의 개량과 특별히 무기 체계 및 기마부대의 무장 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베게티우스의 저술은 그가 살았던 당대와 그 이후의 로마와 동로마제국의 군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세에 이르러 특히 봉건 유럽사회에서 군인을 교육하는 데에 사용된 유일한 군사 개념의 概說書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병 전술의 발전에 관한 그의 논의가 중세 유럽의 세련되지 못했던 군사 개념에 쉽게 연관되었기 때문에, 그의 저술은

중세의 군인들에게 주요 참고 서적이 되었다.

베게티우스의 저술은 石弓과 騎兵의 충격력을 감소하기 위한 기병의 重武裝 갑옷이 조합되어 보병의 부활을 이끌게 된 때가 되는 무렵, 즉 그가 그 책을 저술한 지 거의 1,000년 이후에 유용하게 되었다. 14세기에 이르러 『De Re Militari』는 명실공히 서양에서 군사교범의 바이블이 되었다.

■ 기타 분야에서의 발전

* 武器

무기는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으나, 로마군은 ballista와 catapult를 輕量化하고 개선하여 전투시 대량으로 활용하였다.

* 築城術과 攻城戰

이 분야에서는 특별한 발전이 없었다. 중국인과 로마인만이 攻城戰에 유용한 무기들을 보유하고는 데, 양측 모두 이전 시기에서 사용한 것에 약간의 개량을 가하였을 뿐 대단한 변화는 없었다.

* 海戰

이 분야에서도 역시 새로운 것은 없었다. 江 순찰 부대에 추가하여, 로마군은 아드리아해와 티레니아 해 및 골 지방의 북부 및 서부 연안에 막강한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함대의 임무는 海賊들의 약탈 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한정되었을 뿐, 외국군과 해상제해권을 겨루는 것으로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 기간 동안 해군력을 중요하게 활용하였던 경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리키니우스 황제가 유럽과 소아시아 사이의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두고 싸웠던 기간에 육군과 조화를 이루어 사용한 경우가 유일하였다.

로마인처럼 중국인도 큰 강에 해군부대를 배치하였고 연안을 방어하기 위하여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국인들이 어느 정도 바다 너머의 무역을 위하여 해군력을 활용한 것은 분명하지만,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다음호에 계속)